데스크시각

정후식

‘정치놀음’ 그만, 민생부터 챙겨라

올 설날엔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다. 실향민이나 수몰민 이야기가 아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전쟁을 치러온 축산농민과 자녀들이 그들이다. 방역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긴 연휴 덕분에 전체 귀성객 수는 여느 해 못지않았지만 마을 친지와 친구들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 세배를 대신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세시풍속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데다 마을 입구에는 ‘출입통제’ 경고문까지 내걸려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구제역·AI

낯설기만 한 명절 풍경은 두 달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구제역과 AI가 빚어낸 합작품이었다. 이들 가축전염병은 인간의 무절제한 이기심과 탐욕이 부른 재앙이라는 뒤늦은 반성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부실한 초동대처와 허술한 방역체계가 문제였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때 간이키트검사의 ‘음성’ 결과에만 의존해 차단방역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확정판정이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방역에 나섰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지닌 바이러스는 이미 주위를 오염시킨 뒤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이 사태를 국가 재난수준으로 키운 것이다.

일부에선 이번 사태를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민·관·군 합동의 강력한 초기 방역으로 확산을 막았던 사례와 대비시키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책임론에 제기되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파동 수습 뒤 물러 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은 ‘구제역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얼어붙은 설 분위기에는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도 한몫 했다. 구제역 파동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물론 과일과 채소값까지 줄줄이 폭등했다. ‘차례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정부는 1주일이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지만 ‘뒷북’에 그쳤다. 새해 물가를 잡겠다는 공언은 무색해졌다.

그뿐인가.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90만명을 넘어섰다. 평년보다 30만명 이상 많고 금융위기 이후 고용한파가 몰아쳤던 2009년보다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전셋값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평균 0.9% 오르면서 1월 기준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 대란은 고스란히 ‘차례상 민심’에 투영됐다. 귀향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기력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며 흉흉한 민심을 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정치놀음’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개헌 타령이 그렇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마찬가지며, 복지논쟁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개헌에 대해 “늦지 않고 적절하다”며 정치권에 추진을 요구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집권 4년차 개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개헌논쟁 정치공학의 굿판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헌 추진이 국가대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친이(親李)계의 전열정비나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략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청권 조성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또 한 번의 ‘세종시 사태’로 갈등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설 연휴 주춤하는가 싶던 구제역과 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공요금마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기만 하다.

이젠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 정치공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제발 민생 좀 챙겨달라는 애원이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것일까.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사설

국책기관 못믿는 농림부 딴 나라 부처인가

농림수산식품부의 J프로젝트(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대한 억지·생떼 부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J프로젝트 부동지구 개발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재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림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동지구 용역은 문광부가 지난 2009년 11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여부다. 이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국토연구원은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개발 계획은 타당성이 있고 650억 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다시 의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농림부 소유 간척지인 부동지구 부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당초 예상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골프장 조성 규모도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림부의 이 같은 논리는 국토연구원은 물론 용역을 맡긴 문광부가 엉터리 기관이거나, 농림부는 대한민국 부처가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주장의 다름 아니다. 국토연구원은 국가정책, 특히 국토개발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기관이다.

이런 기관을 정부 부처가 부정한다면 국토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만일 농림부의 주장대로 재용역이 실시될 경우 국토연구원의 연구나 용역 결과를 신뢰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는 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래성장동력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발사업이다. 정부가 마땅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농림부의 상식 밖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의 줄기찬 ‘딴죽걸기’의 배후에 정치적 이유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민생치안 외면하는 지구대·파출소 ‘고령화’

광주시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의 연령이 대부분 40~50대라고 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등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광주지방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따르면 산하 7개 지구대와 33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수는 모두 1005명으로, 이 가운데 40대가 494명(49.15%)으로 가장 많고, ▲50대 297명(29.55%) ▲30대 155명(15.42%) ▲20대 59명(5.87%) 등 40~50대가 7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부경찰서 지구대의 경우 20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북부경찰서 A지구대는 팀원 11명 모두가 40대 이상이라고 한다. 범죄자는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해야 할 경찰관들은 고령화되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이가 많은 조직은 노련하지만 기동력이 떨어지고 신종 수법에 대한 적응력도 느려 범죄의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범인을 쫓다가 지치거나 피해를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이처럼 고령화 되는 이유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등 상급기관에서 기동력과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젊은 경찰관들을 기동대나 수사과·형사과 등에 우선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예방활동과 강력범죄 등 초동조치를 해야 할 사건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민생치안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방경찰청은 젊은 경찰관들의 순환근무 등을 통해 인적 균형 및 치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 예방과 단속이 범인 검거 등 사후처리보다 우선시 되는 게 경찰의 기본 직무가 아닌가.

은펜칼럼

최희동

막대기 말고 묘목을 심자

설 민심이 싸늘하다. 국민들의 부아가 치밀어 오른 것이다. 며칠 전 대통령은 ‘개헌 논의’와 함께 충청도에 조성하기로 했던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류 값과 야채, 과일 등 고물가, 청년실업으로 대변되는 일자리 문제, 여기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로 축산농은 파산 직전이고 전세값의 폭등으로 서민들은 추운 겨울나기도 어려운데 그에 대한 고민과 걱정보다는 엉뚱한 문제로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켰다.

물론 개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헌법은 현시대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보다는 4년 중임의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개헌논의를 왜 지금까지는 추진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날 무렵에 갑작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그러한 논의보다는 서민경제 살리기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가장 적합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한다고 하니 충청도가 분노할 수 밖에 없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돼버렸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과학마저 정치영역에서 놀아나는 현실이다.

이런 탓에 ‘국민하기도 힘들다’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현실은 대통령과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이며,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국민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래서 요즘 ‘실수하지 않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말이다.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역감정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사람이 아닌 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인들의 출마를 막기 위하여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어 선거 때가 되면 자질과 능력의 검증보다는 어느 당 후보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제 넋두리보다는 현명해져야 한다. 평소에는 당보다 후보의 인물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던 유권자들이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지역감정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치꾼들에게 다시 현혹되어 막대기(정당)에 투표를 되풀이하는 잘못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광주일보의 새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60%의 국민들이 현역 국회의원을 물갈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 ‘묻지 마 투표’보다는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인물 위주의 투표’로 우리 정치를 바꿔야한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과거를 되풀이해야 하는 저주를 받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복수보다는 백성을 위한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는 미래지향형의 정조와 어머니의 복수를 하다 왕위에서마저 쫓겨난 연산군의 경우나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선과 일본을 지배했던 고종과 메이지는 자질과 리더십의 차이로 인하여 한 사람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라를 빼앗았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지도자의 통찰력과 자질, 능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홍인화

문화CEO, 김동호 이사장의 교훈

가슴이 뻥 뚫렸다. 맞아, 바로 저렇게 해야 하는데. 어쩌면 저리도 잘했나. 광주일보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문화나무 상상강좌’ 첫 번째 주자로 얼마 전에 광주를 찾았던 김동호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러움 그 자체였다. ‘광주, PIFF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광주시민과 만난 김이사장은 부산영화제와의 만남에서 떠나기까지 15년의 삶을 풀어내며 부산영화제는 자신의 인생 2막이었노라고 정리했다.

그는 95년 처음 부산영화제와 연을 맺었을 때 “영화도 문화도 잘 몰랐었다.”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다. 정말일까. 천만의 말씀, 필자가 아는 바로 김이사장은 문화공보부에서 문화행정 업무를 치러냈던, 노련한 행정가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혜자도 모르고, 김지미도 몰랐던 영화 문외한이었노라”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했던 그가 15년 후인 지난 2010년 부산영화제에서 화려한 퇴장을 했다. 세계적인 여배우 줄리엣 비노쉬와 춤을 췄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의 시선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칸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부러워하더라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투다. 자랑할 만하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무엇이 영화와 문화에 문외한이었던 이를 이토록 존경받는 대상으로 끌어올렸을까. 답은 열정이다. 그는 부산영화제에 바닥 모를 열정을 토해냈다. 그 열정은 부산시민과 영화팬들에게 퍼져갔다. 그리고 세계의 영화인들에게 전달됐다.

처음, 지원을 약속했던 기업이 나자빠지는 바람에 예산확보부터 문제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다니며 예산지원을 이끌어냈다. 그 열정은 번져갔다.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어졌고, 해마다 부산영화제를 찾는 20만 명의 영화팬들을 확보하게 했다. 그들은 김이사장이 뿜어내는 열정에 감염돼 함께 부산영화제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 열정은 또 시작이었다. 열정을 쏟는 동시에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전략이다. 당시 세계적 영화제의 주류는 경쟁영화제였다. 베를린영화제도 칸영화제도, 베니스영화제도 모두 경쟁영화제였다. 경쟁영화제가 화려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까닥하면 영화가 없을 수 있다는 단점을 김이사장은 도쿄영화제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았다. 그래서 경쟁영화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물리쳤다. 대신 좋은 영화를 데뷔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대박이었다. 제작비 마련에 나선 가난한 아시아감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제작비를 마련해줬다. 영화학교를 진행해 세계적인 감독으로 키워내는 텃밭 역할도 자처했다. 적중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길러진 적잖은 감독들이 여타 영화제의 수상자로 등극했다.

김이사장의 이야기는 부산영화제를 성공시킨 한 문화영웅의 무용담에 그칠 수 없다. 그의 사연에서 광주문화재단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 차별화된 콘셉트를 잡는 것은 물론 예산 확보, 그리고 영화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주문화재단은 배우고 흉내라도 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단의 간부들이 팔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때론 맨발로 뛰어야 하고 지게를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고단한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광주의 문화생태계를 튼실하게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그것이 지금 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미덕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無等鼓

지옥

지옥은 인간이 자신의 악업 또는 죄과로 인해 죽은 뒤에 영혼이 간다는 장소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지옥이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가득 찬 형벌의 장소로, 불교에서는 8대 지옥이 있다고 전해진다.

죄인이 서로 죽이며 고통을 받다가 찬바람이 불어 살아나면 다시 고통을 받는 등활(等活)지옥, 뜨겁고 검은 밧줄로 수족이 묶이는 고통을 받는 중합(衆合)지옥, 많은 고통이 엄습하여 슬픈 고함소리를 지르게 되는 호규(號叫)지옥, 심한 고통으로 큰 비명을 지르는 대규(大叫)지옥, 뜨거운 불길에 몸이 태워지는 염열(炎熱)지옥, 염열지옥보다 더 뜨거운 불길로 태워지는 극열(極熱)지옥, 그리고 한순간도 멈춤 없이 갖가지 고통을 겪어야 하는 무간(無間)지옥이 바로 8대 지옥이다. 홍콩 느와르를 대표하는 영화 ‘무간도’의 무간이 바로 8대 지옥 중 가장 무서운 지옥 이름이다.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3개월 새 전국적으로 무려 310만 마리에 이르는 소와 돼지, 염소와 사슴이 차가운 땅 속에 매장됐다.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최근 2개월 새 전남에서만 32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가 매몰됐다.

근육이완제를 맞고 죽어가면서도 꺾어지려는 다리를 바로 세우며 새끼소에게 젖을 물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어미소의 처연한 모습이나, 생매장된 돼지와 오리가 몸을 덮은 흙을 털어내고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안쓰러운 광경들이 잇따라 전파를 탔다.

물론,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맨정신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도 슬프고 처참한 광경이었다. 언젠가는 인간을 위해 죽어야만 하겠지만, 인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시(都市)는 한겨울 찬 바람 속에 생매장되어야 하는 소와 돼지, 닭과 오리에게는 분명 지옥에 다름없었을 것이다. 생매장된 동료의 겹겹이 쌓인 몸을 딛고 땅위로 불쑥 고개를 쳐든 돼지는 무엇을 보려 했을까.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아름다운 한복 생활화, 공기업·공무원부터 앞장을

설날 고향에 다녀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한복을 멋스럽게 차려입었다. 우리 한복, 보기만 해도 화사하고 아름답다. 필자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복을 맞춰 입었다. 요즘은 과거의 거추장스럽고 지나치게 화려한 한복을 탈피해 부담없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이 많이 나와 대중화된 것도 아주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복을 더욱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은 축제 때면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토록 아름다운 한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한복을 생활화하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 한복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선 공기업과 공무원 사회부터 아름다운 우리 한복 입기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이태웅·광주시 서구 서창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